

지역 이모저모

경남도, 경제자유구역 864만평 규모 확대



안동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인 '고향올래(GO郷ALL來) 공모사업의 위케이션 분야에 선정됐다.

안동시

'고향올래' 위케이션 분야 선정

안동시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 추진 '고향올래(GO郷ALL來) 공모사업의 위케이션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총사업비 20억 원(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도 확보했다.

선정된 사업은 근로자가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기업연계형 시설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친 일상의 회복을 넘어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기회의 공간 구축을 목표로 안동형 한옥올래(五~Re) 5대 힐링 전략으로 이어지는 차별화된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 극대화를 목표로 본사업을 기획했다. /안동(경북)=정영우 기자 ycyw57@

담양군

전남 농어촌 군서 삶의 질 '1위'

전남 담양군이 전남 농어촌 군(郡)에서 가장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담양군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농어촌 삶의 질 평가에서 보건복지 분야 4위, 문화공동체 분야 12위로 전국 79개 농어촌 군 지역 중 8위, 전남 17개 군 가운데 1위에 올랐다.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 농어업위에서 개발한 것으로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활력 등 5개 영역 20개 지표를 구성하고, 계층화 분석법(AHP)을 활용해 지수를 산출했다. /담양(전남)=양수영 기자

광주시

폐지 어르신에 '폭염물품' 지급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만 65세 또는 장애인 등 지원이 필요한 폐지 수집 어르신 607명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물품 꾸러미'를 지급한다.

'폭염 안전물품 꾸러미'는 재사용이 가능한 가방에 휴대용 선풍기, 형광 망사 안전조끼, 양우산, 쿨스카프, 쿨패치, 벌레약, 식염포도당, 자전거 후미등 등 9가지 물품과 폭염 행동요령 소책자가 담겨있다.

안전물품 꾸러미는 각 구청을 통해 전달되며,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안부를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교육을 실시해 보다 안전한 수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주=양수영 기자

창원, 거제, 김해 면적 확대
진해신항·가덕도신공항 건설
용지 부족 문제 해결 목표

경남도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창원·거제·김해 28.65㎢(864만 평) 규모 확대 지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계획 면적은 창원 6.2㎢, 거제 8.45㎢, 김해 14.0㎢이다.

경남도는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산업·물류·업무시설 등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조성된 경남지역 물류·산업용지는 3.84㎢로 이 중 99.2%인 3.81㎢는 분양되어 물류·산업용지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의 준공 시점인 2030년에는 항만배후단지가 5.79㎢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경제자유구역 확대 수요조사에서 창원에 국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김해시와 거제시를 포함하는 확대 계획을 세우고 면적을 19.6㎢에서 48.25㎢로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신청했다. 이후 경남도는 산

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경남도의 경제자유구역 확대 구상안을 보면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창원지역은 첨단융복합 제조산업과 복합물류, 거제지역은 관광·휴양, 김해지역은 물류거점으로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창원시 안골동 옥망산 인근 신항배후단지 0.28㎢(약 9만 평)을 연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확대 대상지 중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는 지역은 해

제를 위해 국토부에 국가·지역전략사업 인정 신청을 지난 5월 완료했고,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과 국가 첨단물류플랫폼 구축계획 등의 국가사업 계획 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남도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하동권역을 우주항공산업과 연계하여 진주·사천·남해 등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과 차별화된 개발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세계 최고의 물류·비즈니스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기장군, 'KTX-이음 정차역' 유치대회

15개 유관기관 기관장 참석
부·울·경 중추도시, 관광단지 등
대규모 교통 수요 대응 위해 필요

부산 기장군은 지난 9일 기장군청사에서 기장군기관장협의회 주관으로 'KTX-이음 정차역 기장군 유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종복 기장군수,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 등 15개 유관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사 로비에서 유치 염원 구호를 함께 제창하면서 KTX-이음 정차역 기장군 유치 촉구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참석한 기관장은 노영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장지사장, 이돈하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장, 박선희 기장우체국장, 이창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이광훈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장, 이상석 민주평화통일

전문회의의 기장군 협의회장, 강주훈 기장문화원장, 정종복 기장군수,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 송수호 동부산농협 조합장, 문용환 기장수협 조합장, 한삼섭 농협중앙회 기장군지부장, 이동욱 한국전력공사 기장지사장, 노근우 부산기장JC 회장, 송성태 바르게살기 기장군협의회장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기장군은 부·울·경 중추도시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오시리아관광단지 및 동남권방사선 의과학단지 등 지역 내 대규모 교통 수요에 대응하려면 KTX-이음 정차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TX-이음 정차역 유치로 앞으로 부산~양산~울산 철도와 연계해 기장군의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장들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영덕군 고래불해수욕장 모습.

/영덕군

영덕군 7개 해수욕장, 내일 동시 개장

내달 18일까지 운영

영덕군이 지정 운영하는 고래불, 대진, 경정, 오보, 하저, 남호, 장사 7개 해수욕장이 오는 12일부터 일제히 개장한다.

이들 해수욕장은 다음 달 18일까지 38일간 운영되며, 개장 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되나 성수기인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 운영한다.

고래불해수욕장의 경우 다음 달 8일부터 11일까지 피서철 손님맞이를 위한 비치사커대회를 비롯해 해변 노래자랑, 백합줍기 체험행사 등의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한편, 대진해수욕장은 청소년 어울

마당, 광어 맨손잡이 체험, 백합줍기 체험행사를 실시하며, 장사해수욕장은 상시 어린이 버블풀장을 운영하고 매주 주말에는 최기정과 함께하는 해변 페스티벌이 열려 한여름의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영덕군은 장구군이나 대장군과 같은 유해 세균 수질검사, 백사장 모래 유해 중금속 검사 등 해수욕장 안전검사를 진행해 적정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요원과 울진해양경찰서가 합동 현장 교육을 시행하고, 127여 명의 인명구조요원 및 군·경찰·해경·소방서 인력을 배치하여 일몰 후의 순찰 강화를 통해 완벽히 할 예정이다.

/영덕(경북)=김종철 기자 kimjongseol@

"휴가철 바가지 요금 없는 부산으로 오세요"

오늘 오후부터 대규모 홍보 캠페인

부산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구·군 및 국민운동단체와 함께 11일 오후부터 대규모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바가지요금 없는, 친절하고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부산'을 홍보하고, 부산이 관광객들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알리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캠페인은 11일 오후 5시 30분부터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과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 등 3곳에서 구·군, 국민운동단체 등 1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

행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는 국민운동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시지부, 부산광역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등이며 동구, 해운대구, 수영구가 참여한다. 나머지 구·군은 지역 내 주요 관광지에서 자체 릴레이 캠페인을 7월 중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캠페인 진행 전에 3개 권역의 관광안내소 등을 방문해 관광수용태세를 점검하고, 캠페인에서는 관광객에게 부산의 주요 관광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 QR코드가 들어간 홍보 물품도 배부하기로 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정읍시, '시민과의 대화'로 소통 행보

이학수 시장, 23개 읍면동 방문

정읍시 이학수 시장이 '2024년 시민과의 대화'로 시민 소통 행보를 이어나간다.

이 시장은 지난 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정읍시 23개 읍면동을 방문하여,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직접 만나

시민중심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시정운영 방향과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의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읍(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뉴스리뷰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바이든, 나토 정상회의 연설 무사 소화...토론때와 달랐다 /사진 뉴스스
▲美, '원전 허가 기간 단축' 법 제정... '친환경·에너지 안보 강화'

▲크렘린궁, 北 군사교육대표단 방문에 "모든 분야 협력 심화"
▲젤렌스키 "11월美대선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도와달라"



▲중국 6월 CPI 0.2% 올라...5개월 연속 상승세 /사진 뉴스스
▲일본 증시, 닛케이지수 이틀 연속 최고치 경신...토픽스도 2900선 돌파